

알차고 똑똑하게 중앙도서관 101% 활용하기!

학내기관 탐방

이 영 미
서울대 중앙도서관

도서관은 진화한다.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공부만 하거나 단순히 책을 빌려보는 곳이 아니다. 서가에서 만나는 오래된 책장의 향기는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가 더해져 더욱 그윽해졌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도서관은 살아 움직이며 발전해 나간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도 스마트 시대에 맞게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모바일앱, facebook, 도토리On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서울대인과의 소통을 확대하였고, 긴급 도서 구입 서비스, 기숙사 및 공과대학 반납함 설치, 타관 반납 운영, 학과별 맞춤형 연구지원 및 DB 이용교육 등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알수록 유용한 서울대 도서관을 알차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어디서든 편리하게 도서 반납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는 **타관 반납** 서비스를 통해 한결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게 되었다. 기한 전 반납도서(리콜도서)를 제외한 대출 도서는 소장 도서관에 상관없이 중앙도서관 및 각 분관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하다. 또한 기숙사(900동, 920동)와 공과대학(301동, 302동)에도 무인반납함이 설치되어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책을 반납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필요한 도서는 발빠르게

중앙도서관은 지난해부터 박사과정 대학원생·연구생들의 효율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긴급 도서 구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평소 자료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박사과정(연구생 포함) 학생이 희망도서 구입을 신청할 때 긴급 도서로 표기하면, 연간 1인 5책에 한하여 DHL 등을 통해 신속히 구입하여 제공한다. 또한 희망도서 구입 상한액도 확대하여 논문 작성 및 강의 등에 필요한 도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 손안의 도서관... 모바일앱

스마트 시대에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중앙도서관 **모바일앱**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하지 않고도 모바일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기에서는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대출 예약·연장, 열람실 좌석현황 조회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DB 이용교육 신청·조회, e-Resource 학외접속을 통한 전자자료 열람, 중앙도서관 3D 안내도 및 최단경로 안내 서비스 등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학술 DB, 음악감상, 외국어 학습... 풍성한 디지털 콘텐츠의 세계로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디지털 콘텐츠들도 무궁무진하다. 서울

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학내외에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Database, e-Journal, e-Book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NAXOS Music Library Database를 통해서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CD제작사인 NAXOS사에서 발행한 클래식 및 영화음악, 재즈 등 다양한 음악 CD 63,000여 장에 수록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사이버 어학당처럼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Database도 있다. Emerald 저널의 Reading List Assist는 전 세계 교수진의 수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적절한 관련 아티클만을 엄선하여 제공하는 아티클 추천목록으로 교수 및 학생들의 강의 준비에 매우 유용한 DB이다. 이러한 e-Resource 콘텐츠는 중앙도서관 모바일앱 혹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학과 맞춤형 연구지원 · DB 이용 교육

서울대 구성원들의 효율적인 학습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Database 및 학술정보검색 이용 교육도 매달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별 분야 DB와 인용색인 DB, EndNote 사용법, 참고문헌 작성법 등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수강하면 된다. 또한 연구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면 단과대별 전담 사서가 관련 주제 자료와 정보를 찾아 신속하게 제공한다. 이용교육과 연구지원 서비스는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수시로 학술정보 이용과 관련된 문의를 하면, 담당사서로부터 친절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search Guide도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어 학과별 전공 학습 및 연구에 필요한 유용한 참고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facebook, 도토리On... 도서관과 친구되기

중앙도서관은 '중도씨' 라는 명칭으로도 유명하다. 이것은 바로 중앙도서관이 이용자



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facebook에서 불리는 이름이다. 도서관 소식은 물론 각종 서비스, 추천 도서, 설문 조사,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내용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고 때로는 퀴즈릴레이와 깜짝 이벤트도 펼쳐진다. 이용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도토리 On은 실시간 메신저를 통해 자료검색, Database, 자료실 활용 등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가능하니 필요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게 사서에게 질문하고 답변도 즉각 얻을 수 있다.

도서관에서 휴식과 문화를...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북카페이다. 이곳은 쾌적한 환경과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용자들이 책 정보를 교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우리 대학 교수 저작물, 신간 시사·교양 잡지, 교양 만화와 함께 전자 신문 등도 비치되어 있어 휴식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한 영상자료실에 가면 DVD 약 10,000종, 비디오 2,900종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전용석 24석이 설치되어 있어 영화, 교양, 학술, 다큐멘터리 등의 감상이 가능하다. 한편, 중앙도서관 터널에서는 각종 다양한 전시회가 연중 진행된다. 바야흐로 서울대 도서관은 지식, 정보,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서울대인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해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북카페 facebook 이벤트



▲ 영상자료실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snu.ac.kr>